

용역최종보고서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정책성등급조사 결과보고서

2023. 8.

< 요약 >

I. 정책성등급조사 개요

1.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행사 개요

□ 행사주관기관인 (사)부산국제영화제가 작성한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개최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 등 자료에 따르면 당 행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개최기간: 2024년 10월 2일~11일 (총 10일 간)
- 개최장소: '영화의 전당'을 비롯한 센텀시티, 해운대, 남포동 등 부산시 일원
- 소요예산: 166억 원(국비 35억 원, 시비 78.5억 원, 자체수입 52.5억 원)
- 주요행사: 영화상영(70개 국가 250여 편),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아시아영화아카데미, 커뮤니티비프, 시상식, 관객과의 대화 등
- 참가규모: 관객 약 18만 명(국내·외 영화관계자 약 1만 명 포함)

□ 『기본계획』에 제시된 당 행사의 개최목적은 아래와 같음.

- 1) 한국과 아시아 영화 및 콘텐츠의 플랫폼
- 2) 영화제와 온라인을 결합한 한국과 아시아 영화 향유
- 3) 한국과 아시아 영화인 역량 강화 및 네트워킹 기회 제공
- 4) 시민사회, 커뮤니티와 결합한 관객 및 청년 주도 개방형 행사
- 5) 영화·영상예술과 제작, 산업과 학술을 아우르는 담론의 장
- 6) 종합적인 문화소비 페스티벌

2. 정책성등급조사의 목적과 주요 내용

□ 본 보고서의 정책성 검토는 『기본계획』을 비롯한 관련 자료들에 대한 문헌조사와 전문가 협의를 토대로 수행되었음.

- 행사 개최의 정책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원가분석, 전문가 그룹이 참여한 AHP 분석 등의 기법을 활용하였음.
- 행사 개최의 정책성 판단기준으로는 국제행사와 관련된 기획재정부의 훈령과 부속 지침¹⁾에 규정된 내용을 적용하였음.

1) 기획재정부 훈령 제616호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2022. 11.) 및 『국제행사관리지침』

Ⅱ. 행사의 성격 및 유사사례 파악

1.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행사의 성격과 특징

- 정부의 규정²⁾을 적용할 경우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는 국제회의나 박람회보다는 “우리나라의 세계화 수준 향상 및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로 구분 지을 수 있음.
 - 당 행사는 국제기구 등이 주최하는 행사는 아니나, 국제영화제작자연맹(FIAPF)이 공인한 전세계 국제영화제(2023년 현재 총 42개) 중 하나임.
- FIAPF의 분류에 따르면 「부산국제영화제」는 ‘극영화 중심의 특수경쟁영화제’로 구분되나, 영화전문가들은 보통 ‘비경쟁(또는 부분경쟁) 종합영화제’로 지칭하고 있음.
 - 당 행사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대형 국제영화제 중 하나로, 아시아 영화의 비전을 제시하고 재능있는 감독과 영화를 발굴하여 소개하는 플랫폼으로서 세계 영화계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음.
-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는 2024년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동종행사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일반 대중의 관심도도 높은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됨.
 - 「부산국제영화제」는 1996년에 시작된 국내 최초의 국제영화제로서, 현재까지 예산, 참여인원, 행사일수, 프로그램의 종류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동종행사들 중 최고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고, 설문조사와 언론 기사를 통해 분석된 일반의 인지도와 관심도 역시 가장 높은 영화제 행사임.

2)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정의) 참조

2. 동종·유사 행사 사례 분석

가. 국내 사례

- 국내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한국 영화산업과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국고를 지원하는 8개(「부산국제영화제」 포함)의 국제영화제가 있음.
 -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1997년 시작하여 아시아의 대표적인 판타스틱 영화제로 자리매김하였고, 전 세계의 판타스틱 영화와 장르영화를 소개하며 관련된 프로젝트 마켓도 병행하고 있음.
 -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역시 1997년 출범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여성영화제로 성장했으며, 아시아와 세계를 잇는 여성영화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여성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는 방향성을 표방하고 있음.
 - 「전주국제영화제」는 2000년에 독립·디지털 영화 중심 영화제로 출발하여 2009년에는 저예산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영화를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 마켓을 도입하였으며, 「부산국제영화제」와 더불어 비경쟁 영화제이자 한국의 대표적인 종합 국제영화제로 알려짐.
 -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2005년 시작된 아시아 최초의 음악영화제로, 음악을 주제로 한 영화만을 선정하여 상영하고 있으며, 제천의 다양한 자연 속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휴양 영화제라는 특징이 있음.
 -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는 2006년 시작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청소년 영화제이며,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2009년 시작하여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 다큐멘터리영화제로 성했고,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2016년 시작한 국내 유일의 산악영화제이자 친환경영화제임.
- 2020~2022년 간 국내 국제영화제에의 참가국 수와 상영영화 수는 「부산국제영화제」가 평균 70개 국가 219편으로 최대였던 반면,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평균 29개 국가 112편으로 두 지표 다 최소였음.
 - 프리미어(개봉 전) 영화의 상영 비중은 「부산국제영화제」(88.8%), 「부천국제판

탄스틱영화제」(83.2%),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81.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위의 기간 중에 국내 국제영화제들은 평균적으로 예산의 약 13.8%를 국비에서 지원받았으며, 연평균 예산은 「부산국제영화제」가 96.4억 원으로 가장 컸고,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53.4억 원으로 두 번째였던 반면,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가 9.5억 원으로 가장 적었음.

나. 해외 사례

□ 1946년에 창설된 칸영화제는 세계 3대 영화제(칸, 베니스, 베를린) 중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행사이며, 자체적인 필름마켓(Marche du Film)도 이 분야에서 최대·최고의 행사로 인정받고 있음.

- 칸영화제는 원칙적으로 영화계나 언론계 등 관계자가 아닌 일반관객의 입장을 제한하며, 출품작은 영화제 시작 전 12개월 내에 제작되어 상영·전시된 적이 없는 작품이어야 하는 등의 까다롭고 엄격한 규칙을 제정하고 있음.

- 칸영화제는 미국 헐리웃 영화를 포함한 가장 폭넓은 영화 스펙트럼을 보여주면서도 상업적 효과와 예술적 수준의 균형을 잘 맞추어 세계 영화의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무대이자 세계적인 감독·배우 및 영화산업계 인사들의 집결지로서도 높은 명성을 유지해오고 있음.

□ 베니스국제영화제는 1932년 창설된 세계 최초의 영화제로서 세계 3대 영화제 중 에서 규모는 가장 작지만 예술영화 지향성은 가장 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음.

- 2000년대 들어 동 영화제도 상업적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 마켓을 설립했으나, 최근까지도 베니스 필름마켓은 아직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베니스국제영화제의 본선 경쟁부문에 수여되는 ‘황금사자상’은 칸의 ‘황금종려상’과 함께 아직도 전세계 영화계에서 가장 명예로운 상으로 여겨짐.

□ 베를린국제영화제는 1951년에 분단된 독일의 서베를린에서 창설되었으며, 최근까지 칸은 물론 규모가 더 작은 베니스에 비해서도 예술적 권위는 더 낫다는 평을 받으나, 더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성격의 영화제로 평가되고 있음.

- 동 영화제와 더불어 개최되는 ‘유럽필름마켓’은 칸의 ‘Marche du Film’ 뒤를 이어 제2의 위상을 지니는 필름마켓으로 성장했음.
 - 베를린국제영화제가 칸이나 베니스 영화제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은 일반관객에 대한 개방성이라 할 수 있는데, 2023년의 경우 일반관객에게 판매한 저렴한 티켓이 30만 장을 넘는다는 사실에서 동 영화제가 개방성과 축제성을 중요시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토론토국제영화제는 1976년 처음 시작되었으며, 10일 동안 토론토 중심 거리에 스크린을 설치하고 300~400여 편에 달하는 영화를 25만 명 이상이 관람하는 비경쟁 영화제로서 유명함.
- 관객들의 직접 투표로 결정되는 관객상이 가장 중요한 상일 정도로 가장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영화제이며, 세계 최대 영화시장이자 할리우드 영화산업의 본거지인 북미지역의 관객 반응을 직접 감지할 수 있는 무대라는 점에서 산업적 위상도 큰 영화제로 알려짐.
- 로테르담국제영화제는 1972년에 처음 시작되었으며, 경쟁을 포함한 비경쟁이라는 체제 하에서 기성 관습에 물들지 않은 독립적이고 혁신적인 작품에 초점을 맞추는 영화제로 알려져 있음.
- 영화와 비디오를 포함한 모든 시각예술 장르에서 장편과 단편을 가리지 않고 상영하며, 최근까지 매년 600여 편의 작품이 출품되고 30만 명 가까운 관람객들이 찾는 거대한 영화박람회이자 세계 최고의 독립·실험영화 축제로 성장했음.

Ⅲ. 행사 정책성 분석

1. 행사 개최의 공익성

-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는 한국의 영화산업 발전과 문화적 위상 제고, 부산시의 영상문화산업도시 육성과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사 개최의 공익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아시아 영화 중심의 상영 섹션 구성, 영화·영상 콘텐츠 발굴과 유통, 영화 인재 양성,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축제 제공 등의 프로그램은 행사의 개최목적 달성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평가됨.
- 이 행사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과제인 ‘케이-콘텐츠 분야별 맞춤형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및 ‘관광과 케이컬처의 독보적·매력적 융합’과 연계됨.
 - 또한, 현 정부의 국정과제(58번)인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과도 긴밀히 연계되는 것으로 평가됨.
 - 이 행사는 부산시의 역점시책인 ‘변화를 선도하는 영상콘텐츠 매력도시 조성’ 및 3대 세부추진과제(유네스코 영화창의도시 위상 강화/ 영상 산업도시 성장 기반 강화/ 게임·웹툰 등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성장 견인)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

2. 행사 계획의 우수성

-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의 주요 프로그램과 콘텐츠는 1996년부터 매년 개최되어온 「부산국제영화제」의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행사계획의 실현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됨.
 - 행사개최 시기와 기간(10월 초, 열흘간)은 동 영화제의 출범 초기부터 이어져 온 것이며, 국내·외 주요 국제영화제들과 시기적인 중복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 행사개최 시점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 아시아 국가들의 대한민국대사관, 한국문화원 및 현지 개최 한국영화제를 무대로 기존에 미비했던 외국인 관람객 유치계획이 보완되었으며, SNS와 굿즈를 활용한 홍보계획도 다양한 방식과 시기별 추진 일정이 추가되었음.
-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던 온라인 프로그램 및 이벤트를 계속 활용하기로 했으며, 기존의 E-IP 마켓에 출판부문을 강화하여 ‘스토리마켓’으로 발전시키는 등 과거 행사의 개최 경험을 반영한 사례가 있음.
- 2024년에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주요 행사는 영화의전당, 벅스코 및 기존 상영관 등의 기존시설물을 활용한 후 반납하며, 새로 도입된 지역주민 참여 행사(‘동네방네비프’)는 부산시의 16개 구·군과 협의하여 장소를 결정하므로 전반적으로 시설물 활용과 관련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3. 주관기관 등 관리역량 및 지역주민 여론

- 부산시는 국내에서 근대적인 영화문화와 기술이 일찍 유입된 도시이며 최초의 영화상과 본격적인 국제영화제가 처음 창설된 도시라는 상징성이 있음.
- 주행사장인 ‘영화의 전당’이 위치한 센텀시티 일대는 부산의 도시철도와 동해선 광역전철 및 간선도로들과 직접 연결되어 교통접근성이 좋은 편이나, 시내 중심(남포동)과의 거리는 다소 먼 편임.
- ‘영화의 전당’을 비롯해 총 6개 극장의 29개 현대식 상영관이 확보되었으며, 국제 규격인 벅스코의 제1, 2전시장과 WBC(월드비즈니스센터) 등도 활용하여 전반적인 행사개최 인프라는 부족함이 없는 수준으로 평가됨.
- (사)부산국제영화제는 지난 27년간 「부산국제영화제」를 개최·운영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산시는 동 영화제 이외에도 단편, 어린이·청소년, 해양 등 다양한 주제의 영화제 11건과 게임, 한류문화 등의 콘텐츠를 주제로 한 국제행사를 유치 또는 개최 지원한 실적이 있음.

- 사업수행주체인 부산시와 (사)부산국제영화제는 당 행사 개최계획의 수립·변경 및 예산 조달 등에 대해 주무부처(문화체육관광부)와 상시적으로 협의하고 있음.
- 행사주관기관은 부산시의 대학들 및 지역문화단체들과 자원봉사, 포스터 홍보, 예매권 이벤트 진행, 촬영 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사전협의를 진행할 계획임.
 - 민간기업들과는 행사 후원·협찬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특히 부산시의 지역 창작자, 상품개발자들과는 굿즈 개발·판매에 대해 사전협의를 진행할 예정임.
 - 설문조사에서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개최에 대한 부산시민의 지지율, 행사목적에 동의하는 비율, 행사주관기관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가 각각 85%, 90% 및 86.3%로 높게 나타났음.

4. 국고지원 요구의 적절성

가. 국고지원이 불가피한 사유의 적정성

- 전술한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개최의 공익성 및 해외 동종행사들의 사례를 고려할 때 이 행사에 대한 국고지원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문화체육관광부의 제출 자료에 따르면 세계 3대 영화제(칸, 베니스, 베를린)의 경우에도 중앙정부의 지원 비중이 20~3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 전국민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52.5%가 “행사주관기관의 국고지원 요청 수준이 적당하다”, 18.8%는 “국고지원 수준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함.

나. 국고지원 요구 수준의 적절성

-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행사계획이 요청하는 예산 대비 국비의 비중이 21.1%인 반면, 최근 4년간(2019~2022) 국내 8개 국제영화제에 대한 평균 국비지원 비중은 14.0%였던 것으로 나타남.

- 이렇게 볼 때,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의 국고지원 요구 수준은 최소한 국내의 동종행사 간 형평성의 측면에서는 다소 과도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IV. 행사 사업비 분석

1.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사업비의 구성

□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의 주관기관은 총 166억 원에 달하는 동 행사의 사업비를 「부산국제영화제」(131억 원)와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35억 원)의 두 부문으로 나누어 계상하였음.

- 위 두 부문은 모두 각각 사업비, 일반관리비, 예비비의 3가지 지출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각각 1~9개의 세부지출항목으로 구성되고, 이들의 하위에 총 1,100여 개에 달하는 세세부지출항목 및 관련된 산출내역이 포함됨.

표 IV-1.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의 사업비 구성

부 문 / 항 목	금 액 (원)
1. 부산국제영화제	13,100,000,000
1-1. 사업비	9,667,768,492
1-2. 일반관리비	3,235,342,095
1-3. 예비비	186,889,413
2.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3,500,000,000
2-1. 사업비	2,942,105,241
2-2. 일반관리비	523,104,153
2-3. 예비비	34,790,606
합 계(1. + 2.)	16,600,000,000

2. 사업비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부산국제영화제」 부문

□ 「부산국제영화제」 부문 검토 결과, 3개 지출항목 모두 금액이 축소·조정되어 131억 원이던 부문 사업비가 약 127.5억 원으로 조정되었음.

- 검토율은 3개 항목 모두 약 97%로서 대동소이하였음.

표 IV-2. 「부산국제영화제」 부문의 항목별 검토 결과

항 목	계획 금액(원)	검토 금액(원)	검토율(%)
사업비	9,667,768,492	9,422,988,374	97.37
일반관리비	3,235,342,095	3,146,554,053	97.26
예비비	186,889,413	181,917,005	97.34
합 계	13,100,000,000	12,751,459,432	97.34

나.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부문

□ 3개 지출항목에 모두 금액이 축소 조정되어 부문 사업비의 규모가 35억 원에서 28.9억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음.

-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부문에 속한 3개 지출항목의 검토율은 76%~83% 수준으로, 「부산국제영화제」 부문에 비해 모두 낮았고 항목간 편차도 컸음.

표 IV-3.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부문의 항목별 검토 결과

항 목	계획 금액(원)	검토 금액(원)	검토율(%)
사업비	2,942,105,241	2,461,594,939	83.67
일반관리비	523,104,153	401,514,885	76.76
예비비	34,790,606	28,745,543	82.62
합 계	3,500,000,000	2,891,855,367	82.62

3. 적정 사업비 추산

□ 「부산국제영화제」 부문과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부문의 사업비 검토 결과를 총합한 156.4억 원을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행사의 적정 총사업비로 추산함.

- 이러한 적정 총사업비 추산액은 행사주관기관이 『기본계획』에서 요구한 규모(166억 원)의 94.24% 수준이며,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의 총사업비가 약 5.76%(약 9.6억 원) 과다계상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표 IV-4.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의 적정 사업비 추산 결과

항 목	금액(원)
「부산국제영화제」 부문	12,751,459,432
사업비	9,422,988,374
일반관리비	3,146,554,053
예비비	181,917,005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부문	2,891,855,367
사업비	2,461,594,939
일반관리비	401,514,885
예비비	28,745,543
적정 총사업비	15,643,314,799

V. 종합평가 및 결론

1. 종합평점 도출

- 『국제행사관리지침』에 규정된 평가기준(‘정책성 기준’)과 배점³⁾을 적용하여 AHP 분석 방식에 의해 종합평점을 도출하면 아래 <표 V-1>과 같음.
- 4대 ‘정책성 기준’의 평점은 각각에 대한 평가점수(100점 만점)를 각각의 가중치로 곱한 값이며, 종합평점은 4대 ‘정책성 기준’의 평점을 모두 합한 값임.

표 V-1. AHP 평가자 8인의 평가 결과

정책성 기준	배점	평점	종합평점
행사개최의 공익성	30	26.41	86.73
행사계획의 우수성	30	25.86	
주관기관 등 관리역량 및 지역주민 여론	20	17.68	
국고지원 요구의 적절성	20	16.79	

2. 결론 및 정책 제언

-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개최계획의 정책성 평가를 위한 AHP 분석에서 종합평점이 100점 만점에 86.73점으로 도출되었음.
- 행사주관기관이 요구한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총사업비 166억 원에 대한 세부내역 검토 결과, 적정 사업비는 약 156.4억 원으로 산출되었음.
-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행사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본계획』에서 요구하는 국고지원 규모는 국내의 동종행사 뿐 아니라 과거의

3) 『국제행사관리지침』, “7. 정책성 등급 조사 기준” 참조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 실적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므로 더 적극적인 행사 자체수입 확대 및 부산시 예산지원 확대 방안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관람객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우선 영화제를 찾는 외국인들의 정확한 수를 파악하는 작업이 차기 「부산국제영화제」 행사에서부터 실행에 옮겨지는 것이 바람직함.
-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의 세부지출계획 검토에서 필름마켓 부문의 예산 과다계상률이 영화제 부문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아시아콘텐츠 & 필름마켓」의 양적·질적인 지속성장과 더불어 관련된 예산 수립 및 집행 절차도 더 체계화·효율화될 필요가 있음.